

북한이탈여성 통일 관련 인식에 관한 연구

허훈

(동아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북한이탈여성 의의
3. 북한이탈여성 통일 관련 인식 사례연구
 - 3.1 탈북여성의 실태 및 현황
 - 3.2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
 - 3.3 분석결과
4. 북한이탈여성 통일관련 인식 개선방안
 - 4.1 사회 문화적 교류의 확대
 - 4.2 새로운 코드를 이용한 문화적 문제해결
 - 4.3 패러다임의 변화
 - 4.4 교육제도의 변화
5. 결론

<Abstract>

Heo Hun. 2018. 1. 15.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Unification of Women in North Korea,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204-227.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constantly increasing, with more than 30,000 people leaving the country to date. Women make up more than 70 percent of the total number. The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is mostly conducted by men and all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lthough the study did not show any special characteristics of women, and the study conducted by 8.22 percent of the North's total population was based on women. Therefore,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North Korean women who escaped from the country and to discover the uniqueness of North Korean women who escaped from the country by analyzing their studies. General characteristics analysis found that the research arm was limited, the research subjects were small, the ratio of direct research was high, and experimental design study lacked such characteristics as pre - and post-programmed comparison. This study focused on the study of North Korean women who have left the country to focus on defectors, so it excludes research on North Korean women and the North Korean regime, so it excludes the nature of North Korea in its regime.(Dong-A University)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Escapee, A tendency to study

1. 서론

북한이탈여성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생존을 위협 하는 수많은 외상적사건과 스트레스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다. 탈북 후의 삶은 생존을 위해서 중국에서 원치 않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안전감과 가치감을 잃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할까봐 두려움을 견뎌왔다. 또한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북한이나 중국의 잔여가족을 돌보거나 입국시키는 문제,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부담은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

이 되고 있다. 또한 남녀 간의 역할과 지위에 변화가 생기면서 생기는 갈등이나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남편과의 중혼 및 이혼 등의 문제가 남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남한남성과의 결혼생활에서 생기는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한 부모자녀 사이의 문화적 괴리감과 공감대 부족에서 오는 경직된 의사소통 등으로 인해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편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은 단순히 수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한사회의 변화 과정과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적응과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여성은 사회의 구성단위인 가족을 다시 구성하는 중심인물이며,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북한이탈자녀를 남한사회에서 양육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북한 내 가족을 통해 남한에 북한의 소식을 전하는 주요 통로이자 남한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이기도 하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우리사회의 새로운 일원이며 최근의 흐름은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이다. 북한이탈주민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은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요인이나 배경에서부터 중국이나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오기까지 겪는 경험과 다시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겪는 과정에서 남성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발견된다(박소연 2017).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대부분은 남성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들이 많았으며, 이에 반해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적으로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통일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70년의 분단세월을 거치며 들어선 사상의 차이와 경제적 불균형, 문화적 차이 등 우리

는 사실 같은 민족이지만 많은 것이 다르다. 이와 같은 차이조차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내적인 힘, 곧 인성에서 나온다. 다름을 견딜 수 있는 인내, 어려움을 헤아려주는 공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희생’ 등의 정신을 남북한이 하나 된 후 함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나아가 보다 다양한 주제로 실증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북한이탈여성의 의의

북한이탈여성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연구는 크게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연구와 국내 거주 북한이탈여성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 사정 악화와 식량난 및 사회통제의 약화 등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는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다수가 여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명희(2005)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성향이 짙은 북한사회에서 식량을 구하는 일이 여성의 몫이며,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여성이 장기간 이동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이 탈북하기 전 이미 결혼을 하여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탈북을 하며, 새롭게 중국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숙재 외(2000)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은 체포와 북한 강제송환의 공포 속에서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하며, 인신매매, 매춘, 폭행, 구걸 등 비인간적인 일들을 겪으며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이나 북조선인에게 붙잡혔던 경험 과정에서 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이 있으며, 중국에서 정착한 경우에도 적응과정에서 경제적 독립성 확보와 법적인 호구획득과 한어습득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경제력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시대가족과의 문제점 폐쇄적 생활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태현(2003)은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이 ‘못사는 나라에서 온 조선여성’이라는 정체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중국에서의 그들의 삶은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없고 신분을 위협받는 막막하고 불안함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연구하였다. 따라서 조선족으로 감추고 생활하며 중국인들이 그들의 비합법적 상태 때문에 낮게 취급 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내거주 북한이탈여성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실태를 설명함에 있어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특수성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많다. 여성은 정착 초기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이 외에 임신 출산과 육아 가사 등 여성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을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이 가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 부모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인지적인 시각에서 북한이탈여성의 초기적응단계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 자활자립의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연구도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북한교육이 교육의 기회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의 결과면에서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따른 역할 구분이 분명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북한사회에서 여성에게는 남성과 다른 삶의 경험과 진로 책임과 과제 기회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형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북한교육은 성별에 따른 차별의 또 다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이탈여성은 여성 보건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만성적인여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북한이탈 여성의 성지식 실태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 여성의 성지식수준이 매우 낮고 북한이탈여성 들은 성교

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성교육필요성이 제시 되었다. 북한이탈여성은 탈북과정,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일 관련 인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3. 북한이탈여성 통일 관련 인식 사례연구

3.1 탈북여성의 실태 및 현황

3.1.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표 1 입국현황>(2017년 9월말 입국자 기준 현황) (단위:명)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9	합계
남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53	8,958
여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728	22,135
합계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881	31,093
여성 비율	75%	71%	73%	76%	78%	80%	79%	83%	71%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위에 <표 1>은 2010년도부터 17년도 9월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부터 여성 탈북자가 많아지다 2006년 이후부터 여성탈북자가 70%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3.1.2 북한탈북자 중 여성이 많은 이유

●'80%가 여성' 탈북 남성보다 탈북女 많은 이유 '충격'

북한을 이탈해 국내 들어온 주민들 대다수는 여성으로 성별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입국한 탈북민(1025명) 중 여성은 1025명으로 80.3%에 달했다. 이는 남성(251명)의 4배가 넘는 수치다.

1990년대만 해도 북한이탈자 중 여성은 10%대에 머물렀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1998년까지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자 중 여성 비율은 12.2%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여성 비율은 급증했다. 2001년 45.8%로 늘어난 뒤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8.2%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여성들의 탈북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심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여성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발간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의 탈북 동기는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53.2%)· ‘돈을 더 벌기 위해’ (29.4%) 순이었다. 반면 남성들은 ‘가족을 따라서’ (32.8%)· ‘통제가 싫어서’ (29.4%) 순이었다.

심 의원은 “탈북자 대다수가 여성이지만 이에 대한 정착 지원은 ‘여성쉼터’ 운영과 의류 수선 및 바리스타 교육 정도”라며 “여성맞춤형 정착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출처: 중앙일보).

3.1.3 북한이탈주민 삶의 만족도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그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분석한 논문들은 대부분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이 젊을수록 사회에 대한 적응이 수월하다는 연구(유인진 2000)가 있는 반면, 삶의 만족도와 연령과는 무관하다는 연구도 있다. (이종아 2005) 남한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결혼을 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적 안정을 높여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가 있었지만, 기혼자가 탈북 과정에서 배우자를 동반하지 못한 경우 자책감으로 인하여 남한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미령 2007) 또한 남한 사회에서 생활한 기간이 더 길수록 남한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있으며, (전우택 2005)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직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직장과 같은 사회생활을 통해 남한 사회에 대한 소속감 및 통합감이 확대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해석하였다. 이 밖에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여가 생활에 참여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3.2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한국사회 전문직에 근무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인터넷 상 인터뷰를 인용한 것이다.

<표 2 북한이탈여성청년모임 인터뷰 응답자 프로파일>

이름	나이	직업	출신국
이○○	54	경인여자대학(교수), 북한 전통음식 문화연구원 원장	북한

		탈북여성박사1호	
이○○	43	北 4군단 출신 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	북한
강○○	35	탈북청년모임 '위드유'	북한

3.2.1 북한이탈여성 인터뷰

이애란 교수가 생각하는 탈북자들의 역할에 대해

“탈북자들이 지금은 한국사회에서 봉사를 받는 입장이지만 통일 이후에는 북한에 남한의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통일 이후에도 봉사를 받는 입장이길 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현재도 충분히 봉사를 하는 입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활동이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며, 이와 더불어 일반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꼬집기도 했다.

"요즘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면 세금도 많고 부담스럽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창올림픽과 G20 등 많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명실 공히 세계적인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금이 많이 들고 부담스러워 통일을 꺼리는 건 정말 졸부적인, 낮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행동들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http://unikoreablog.tistory.com/1684> 검색자료>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남북관계에서는 성과를 내려고 조급해하는 것이 가장 큰 실책이라고 본다.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당장 남북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아무것도 없다. 무조건 5·24조치를 해제 하라고

요구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용서도 사과를 받고 해야지 그냥 하는 것을 골종일 뿐이다. 남녀 관계도 한 쪽이 너무 매달리면 잘 안 된다. 밀당(밀고 당기기)을 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밀당을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너무 대결주의적인 시각은 아닌가?

“남한에 와서 놀란 것이 내가 북한을 비판 했다는 이유로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었다. 남한 내에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일각에선 나를 극우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동안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극우라는 비판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북한의 실상을 미화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 않나?”

<자료: <http://cafe.daum.net/3hur/AAW8/4582?q=%C5%BB%BA%CF%BF%A9%BC%BA%CO%C7%20%C5%EB%CO%CF%BF%A1%20%B4%EB%C7%D1%20%CO%CE%C5%CD%BA%E4&re=1>>

뉴 코리아 여성연합대표 이소연 2017.6.26

남한에 와서 처음부터 적응을 잘 했나?

“아니다. 적응을 빨리 못했다. 서점, 고시원, 아르바이트 등 안 해본 게 없다. 육체적으로 힘들어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한번은 사우나 카운터를 보면 월 9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했더니 북한 말씨 때문에 안받아주더라.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뭐라도 해야겠는데, 나이 30대가 지나가 대학은 못 가겠고, 기술은 있어야겠다 싶어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학원도 다녔지만 취직이 안됐다.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북한의 가족소식을 들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더라. 가족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 그때 나는 북남 체제를 처음으로 비교해봤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다른 분들은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인권침해를 받는 것이다.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작은 일이나마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여성들도 힘을 얻었다. 우리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일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됐다. 북한에 라디오를 보내는 단체, 자유, 북한방송, 자유북한

운동연합, NK지식인연대 등 탈북민단체가 많이 있더라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은 보면서 존경스러웠다. 정말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시 탈북여성단체가 없었다. 그러나 기존 단체에서 용기를 북돋워주며 많이 도와주셨다.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나?

“북한체제가 변해야 인권상이 나아질 수 있다. 탈북자들이 이런 활동을 해도 김정은 정권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만둘 수는 없다. 북한의 인권 탄압실태를 알리는 것은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 가시적인 변화가 안 보인다고 우리가 그만두면 김정은은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들은 심리적으로 단 한 번도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다. 따뜻하게 봐 달라” 이소연대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탈북청년모임 ‘위드유, “남한 주도 통일 원하는 북한 주민 늘고 있다”

“최근에 탈북한 청년들은 기존의 탈북 세대와는 다릅니다. 제가 탈북하기 전만 해도 북한에서는 ‘통일은 무조건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이어야 한다’ 는 생각이 주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도 한국이 얼마나 발달했고 잘살고 있는지 알게 되면서 많이 변했어요. 최근 탈북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주도해 어서 통일을 해줬으면 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고 해요. 북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난 10월 7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탈북청년모임 ‘위드유(With-U)’ 의 초대 대표이자 현 기획팀장인 강원철(33)씨를 만났다. 함경북도 무산에 살던 강씨는 2000년 홀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 다롄을 거쳐 이듬해 한국에 들어왔다. 어머니와 동생 등 그의 가족들도 2004년 탈북해 한국에 모두 정착했다.

위드유는 2011년 탈북 청년 8명이 모여 만든 단체. 탈북 청년들이 살아온 얘기도 나누고 정보 공유도 하기 위해 갖던 만남이 정기화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지난해에는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 독도에서 가수 이승철씨와 함께 통일 노래 ‘그날에’를 불러 주목받았다.

“처음에는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 술 한 잔하고 밥 먹는 정도였어요. 모임이 지속되면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았죠. 모두가 고민하던 것이 ‘앞으로 통일됐을 때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배운 지식으로 고향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었죠.”

좌우보다 균형을... 기존 단체와 차별화

위드유 회원은 모두 30대 초반의 탈북 남성들이다. 8명 중 6명이 1982년생이다.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다. 현재 위드유 대표를 맡은 지성림씨는 연합뉴스 TV에서 기자로 일하고, 대학원생인 강씨를 제외하면 나머지 6명도 생업에 종사한다. 2004년 한양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강씨는 졸업한 후 2013년까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 ‘NK비전’이라는 잡지를 발간했다. 지금은 고려대 북한학과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위해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2013년 ‘마중물 음악회’, 2014년 ‘독도 합창단’으로 주목받은 위드유 회원들은 지난 3월 ‘현대사 강좌’를 기획했다. 탈북자들은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드유는 이 점에 착안해 ‘한국에서 통일을 이뤄낼 사람들이 한국 발전의 주역들을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탈북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해 주목받았다.

“한국이 5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몇 안 되는 나라로 해외에서도 부러움을 받아요.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패싸움이 치열합니다. 한쪽에서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대쪽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바쁘죠. 그 점에 주목해 양쪽 진영에서 대표적으로 추앙받는 대통령 두 분씩을 추렸어요. 고인이 된 대통령들을 배우기 전에 묘역을 먼저 참배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연은 7월 11일과 18일 이틀 동안 서울 중구에 위치한 외환은행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11일에는 이승만·노무현 대통령을 묶어 ‘박사 대통령과 고졸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18일 강연은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을 묶어 ‘경제 대통령과 민주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양쪽 진영을 섞은 것이다. 연사로는 이승만연구소장인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국제학) 등이 나섰다. 언론사 기자로 일하는 지 대표의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됐다. 처음에는 탈북청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한국 학생들에게도 강연을 개방하면서 판이 커졌다. 50명으로 기획한 행사에 250명 정도의 학생이 몰렸다. 위드유의 활동 취지에 감명 받은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이 강연 장소와 비용을 지원했다.

“처음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으로 백지 상태에 가깝습니다. 공산주의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공주의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좋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냥 세뇌당했습니다. 내부에선 비교 대상도 없어요.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성향을 많이 따라잡니다. 보통 보수단체나 보수언론 쪽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북한처럼 폐쇄적인 국가를 진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의 진보단체가 나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권이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신 것처럼,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도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통일 후 북한 주민의 미래

강씨는 올해 제출을 목표로 졸업논문을 준비 중이다. 논문주제는 ‘북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최근 탈북하는 청년들의 의식이 종전의 탈북자들과 크게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강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 국경을 통해 한국의 영화, 드라마 등이 북한에 유입됐다”며 “지금은 한국이 북한보다 몇십배 잘산다는 건 어린애들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학과 교수와 박정란 카자흐스탄 유라시아국립대 한국학과 교수가 공동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급변한 것이 확인된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 100명 중 34명이 “통일 한국은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로 단일화 할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6명은 “남북한 체제를 절충한 방식으로 단일화 할것”이라고 답했다.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도 100명 중 88명이 “통일이 북한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탈북자 3만 명 시대가 되면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탈북 청년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예전에 탈북한 40~50대 이상의 세대들은 북한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북한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한국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최근 탈북해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마인드는 한국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탈북자에 대한 고루한 인식과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위드유가 할 일입니다.”

위드유는 행사 기획 시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를 밝게 하자’는 모토를 내건다. 모든 행사를 아이디어 단계부터 기획, 제작, 실행까지 스스로 하는 위드유의 특성상 쉬운 일은 아니다. 위드유의 첫째 목표는 탈북자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이탈자’ ‘변절자’ 등의 어두운 이미지를 걷고,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해 북한 사람

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믿음에는 북한 동포에 대한 애정과 고향에 대한 관심이 바탕에 깔려 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전해 듣는다고 해요. 탈북민들의 생활이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떳떳하게 살면 북한 주민들도 통일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열심히 살면서 사회에도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행사를 벌이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통일이 되고 북한 주민들도 노력하면 우리처럼 잘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위드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2016. 5. 20. 국가안보자료/각종자료

3.3 분석결과

지금까지의 조사된 인터뷰 내용들이 모든 북한이탈여성들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은 통일이 온다면 이들이 겪은 일들은 우리가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례들이 될 것이며 그들이 잘 정착했는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는지의 여부 등은 미래 통일된 한반도의 국민들의 정서적 행복을 좌우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차별 대우를 느끼는지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탈북여성들이 그동안 정착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차별대우를 느껴왔다는 것은 여러 학술 조사나 저작, 뉴스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자유민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아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 탈북여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소홀히 했던 통일안보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4. 북한이탈여성 통일 관련 개선방안

4.1 사회 문화적 교류의 확대

사회통합의 촉진과 지혜요인 그리고 북한이탈여성의 여리 가지고 충 그리고 남북한 통합방향의 모색에 있어 계속적으로 모델로 사용해온 독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남북한의 사회통합의 커다란 걸림돌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경제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경제적 문제와 두 번째로는 사회문화적 이질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이질감에 보다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해 보았다. 독일의 사례 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 후유증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사회문화적 이질감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통합을 이루었을 때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접근해야 할 과제를 제공해준다.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와 같은 물리적인 통합과 사회문화적인 통합이 동시에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4.2 새로운 세계문화 코드를 이용한 문화적 문제해결

2010년 말부터 이어진 중동의 민주화운동에는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 환경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바야흐로 네트워크 시대인 것이다. 앨빈 토플러가 말했던 제3의 물결인 정보화의 물결을 지나 제4의 물결인 관계(network)의 시대라고 말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정보화시대를 뛰어넘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정보화의 시대라고 똑같이 말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 새로운 시대를 Network시대라고 칭한 것은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와 관계들이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가 왔고, 그 연결된 라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생각

들을 그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고 그러한 생각들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시대를 타고 2010년 후반부터 2011년 대에 이르러서 급속도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하나 의문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한류’이다. 요즘 심심치 않게 TV를 틀거나 인터넷을 하면 ‘K-pop’ 열풍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4~5년 전만 하더라도 음악 변방에 속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음악이 어느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입증된 우수한 한국의 문화를 북한이탈여성이 즐길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만 작용이 된다면 문화적인 이질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3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는 앞선 장에서 북한이탈여성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살펴 보았다. 그중에는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점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들이 포함 되어 있었다.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제도적인 변화로 인하여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사람들의 의식변화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커다란 사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커다란 사건은 예측할 수도 없거니와 예측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의식변화의 수준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냉전과 반공이라는 패러다임은 남한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의식적인 측면에서 상호인정 이라고 하는 측면이 함께 충족되어야 사회통합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통일 이후에도 사회문화적 갈등이 계속되어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통일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열이 심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회 문화적인 통합은 여타 제도적인 통합에 비해서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사회적·문화적 통합이 완결될 때까지는 통일과정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단순한 남북한 비교연구를 통해서도 각 사회가 지닌 공통적 가치나 기준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비교연구를 통해서도 각 사회가 지닌 특성만을 중시하며 공통의 가치는 무시 된다.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먼저 추구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남북한 사회통합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남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상호인정의 자세일 것이다.

4.4 교육문제의 변화

사회문화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에 대한 문제이다. 먼저 독일의 교육 통합 시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교육 통합에 있어서의 과제를 안겨줄 것이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는 동독의 학생과 청소년들이 그들 체제가 편입된 서독 체제에서 건전한 생활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내용들이었다. 즉 통일 후 교육에 대한 동독 학부모들의 관심은 자녀들의 통일독일의 새로운 정치 경제 체제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하는 일이었다. 옛 동독지역의 교육제도는 지나친 마르크스주의 편향으로 말미암아 초·중등학교로 부터 고등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이념지향의 교육내용을 보여 왔으며 이러

한 경향은 주입식 교육과 고등교육기관의 사상교육 기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제도는 서독의 학교제도를 토대로 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식 집단주의 교육과 획일화된 통제 교육을 서독의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자유 민주교육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당연히 동독 주민들은 동·서독 교육제도 개편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졌으며 옛 동독의 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전혀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동독사람들은 교육제도가 개악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동독의 교육제도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종합 체제였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은 매우 훌륭하던 평가를 받았으나 그러한 장점들이 전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 문제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을 맞이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회통합에 앞서 교육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하기 위해서 북한학생들의 수준 및 교육과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독일에서도 발생한 문제점인 공산주의식 집단주의 교육을 개방적인 교육태도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시범식 교육이나 하나원에서의 중·고등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 탈북자들의 가장 큰 교육적 고민이 남한 학교에 대해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청소년 탈북자에 대한 교육지원 수준은 그들이 남한에 완전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5. 결론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 안정성 혹은 가족 결속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뒷받침하며 남한사회의 경제적 풍요와 자유에 대한 균형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情)에 대한 정서적 접근과 함께 북한이탈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도덕성·예술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필요하다 남한사회와 남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 직장생활의 어려움 등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과 함께 북한이탈 주민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위축감 북한에서 속고 살았다는 인식 아픈 기억 등에 대한 치유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직업훈련교육과 함께 문화적 소양교육도 겸했으면 한다. 영혼의 양식인 좋은 책을 읽게 하고 영화, 음악회, 연극 등 문화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었던 사회에서 살았으며, 남한 사회에서 돈의 절박함과 정착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과 돈 외에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돌이켜 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분명 효과가 클 것이다.

둘째, 탈북민의 70%가 여성이다. 이들에 대한 배려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워졌으면 한다. 특히 육아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탈북 여성들이 구직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외에도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창구를 마련, 사기, 일터에서의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 성희롱 등 여성 탈북자로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과의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 서로의 생활과 삶을 이야기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북한이탈여성이 더 이상 북한이탈여성이 아닌 보통주민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질 때 더 나아가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는 한국 사회가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하는 성공적인 사회

일 것이다.

본 연구자는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고 국제적 지원을 얻어야 하며 북한 주민의 자발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하여 탈북민 중 다수를 차지하는 북한 이탈여성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차연(2005). 재중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 10호, 한국심리학회지여성. 61쪽~80쪽.
- 강차연(2007). 중국내 거주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대처방식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여성연구논총> 21권,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39쪽~53쪽.
- 강효백(2009). 사실혼관계의 재중탈북여성 및 그 자녀의 법적지위에 관한 중국법제, <경희법학> 44권 3호, 경희법학연구소. 125쪽~152쪽.
- 김태현·노치영(2003).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이야기: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한 중국 생활체험분석, <대한가정학회> 41권 8호,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1쪽~17쪽.
- 김희경(2010). 탈북 여성의 방어기제와 정신건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15권 1호,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55쪽~173쪽.
- 김희경(2010). 탈북여성의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성격 특성에 따른 방어 기제차이, <한국심리학회> 15권 3호, 한국심리학회지여성. 311쪽~329쪽.
- 김희경·신현균(2010). 지역사회 정착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성 및 연령별 심리증상, <한국심리학회> 29권 4호, 한국심리학회지일반. 707쪽~724쪽.

- 김희경·오수성(2010). 탈북여성의MMPI-2 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 29권 1호,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1쪽~20쪽.
- 김희경·전진용(2010). 탈북여성에서MMPI-2의 진단적 유용성: 정신과내 원군과정 상대 조군의 비교, <한국 심리학회> 29권 2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5쪽~353쪽.
- 문숙재·김지희·이명근(2000).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38권 5호,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137쪽~152쪽.
- 박명희(2005). 中國內脫北女性の 生存實態와 難民地位問題, <신 아세아> 12권 2호, 신아시아연구소. 115쪽~144쪽.
- 박소연(2017), 북한이탈여성의 생애사 재구성: 주체사상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사상의 미망으로.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 11권 2호,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5쪽~30쪽.
- 박영자(2006).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5권 2호, 통일연구원. 129쪽~161쪽.
- 박정란(2009). 여성 새터민의 자녀 돌봄과 일: 실태와 지원방안, <한민족문화연구> 28권 2호, 한민족문화학회. 97쪽~135쪽.
- 백영옥(2002). 중국내 탈북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 연구학 회보> 6권 1호, 북한연구학회. 241쪽~264쪽.
- 안재희·민무숙(2003). 탈북여성을 통해 본 북한여성의 교육경험 분석, <여성연구> 2권 65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11쪽~244쪽.
- 육상숙·김윤상·임은미(2004). 탈북여성들의 월경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관련 인자들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 17권 4호,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74쪽~185쪽.
- 이금순(2006).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 과정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5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191쪽~234쪽.

- 이민영·김현경(2007) 새터민 여성의 이주로 인한 상실의 극복체
 험: 남한남성과 결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525쪽~554쪽.
- 이애란(2010).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사회정착현황과 조기정착방안,
 <Jpi정책포럼> 39권, 제주평화연구원. 1쪽~18쪽.
- 진미정(2008). 탈북자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문화적 적응 및 만족
 도: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5권 1호, 한국
 인간 발달학회. 139쪽~157쪽.
- 최대석·박영자(2011).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양
 적성장을 넘어선 ‘성찰’ 과 ‘소통’, <국제정치학회> 51권 1
 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87쪽~215쪽.

<인터넷 기사>

이애란 교수

2018년 1월 5일 검색자료

<http://unikoreablog.tistory.com/1684>

2018년 1월 5일 검색자료

<http://cafe.daum.net/3hur/AAW8/4582?q=%C5%BB%BA%CF%BF%A9%BC%BA%CO%C7%20%C5%EB%CO%CF%BF%A1%20%B4%EB%C7%D1%20%CO%CE%C5%CD%BA%E4&re=1>

이소연(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tongnews&logNo=221037806955> (한민족의 중심 미디어 한통신문)

[출처: 중앙일보] '80%가 여성' 탈북 남성보다 탈북女 많은 이유 '충격' 2016.9.21

강원철(탈북청년모임 ‘위드유’)

<http://blog.naver.com/kimhs2769/220714934012>(작성자 일산간지남)

필자 소개

성 명 : 허훈

소 속 : 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수료

전자우편 : hhun09@hanmail.net

투고일: 2018. 1. 15 / 심사일: 2018. 2. 1 / 심사완료일: 2018. 2. 9